

우파에서 빈카의 침입자들이 출구로 안내되었다.



9:30 2019 년 4 월 29 일, |
저자: Media portal Proufu.ru.
[All articles by the author.](#)

소액주주와의 긴 소송에서 한국 기업의 승리가 선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 nypost.com

두 달 전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중재법원은, 우파소재 러시아-캐나다 합작법인 "빈카"의 주주명부로부터 Keriat Oil Ltd(영국), 캐나다 JAV International Ventures Ltd, Oliver Petroleum Ltd 를 제외시켜달라는 한국 기업 테라리소스(Tera Resource)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바쉬키르

지질탐사회사(한국 기업이 빈카 자본의 70%를 소유중인)의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최종적인 결말을 맺었다.

이러한 주주갈등은 2010년 JAV International Ventures Ltd가 지명한 JSC 빈카의 CEO가 회사의 주주등록부 서류 등을 신임 최고경영자(CEO)(Tera Resource Co. Ltd.)에게 넘기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중재법원은 사건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회사 내 기업 지배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산 횡령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이 한국 기업은 주주등록부를 복원했지만 피고를 막지 못했다.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건에서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법원이 분쟁을 종결하였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6년 또 다른 불법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그들 3인이 빈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용하여 회의에서 A.P. Veretentsev를 최고경영자로 임명했다. 이 의사록에 기초하여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등록기관에 대한 허위 정보가 통합법인등록부 (Unified State Register of Legal Entities)에 기재되었다. 그 후 A.P. Veretentsev는 경영자에게 배당된 법적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그 연루자에게 유리하도록 빈카의 핵심 자산을 탈취하는 행동을 여러 번 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합작 주식 회사가 압류된 동안에, (석유 판매 등에 의한) 계약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이, 피고인이 지배중인, LLC "Ufatrade"에게 유리하게 양도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어도 2450만 루블의 수입이 빈카로부터 빼돌려졌으나 원유를 계약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준비(원유를 상품 상태로 가져오는 것)와 관련된 원가는 빈카에 귀속되었다. A.P. Veretentsev에 관한 허위 정보가 통합법인등록부에서 제외된 후, 계약상대방들은 빈카를 상대로 용역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원유 매출수입을 빼앗고 횡령한 피고인들은 회사의 부채를 가중시켰다.



사진: prigovoru.net

재판부는 "주주등기부 분실, 기업지배력 장악을 위한 분쟁의 부당 개시, 통합법인등록부 의사록 및 자료의 위·변조, 횡령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사 부당 선임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직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회사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방해하고 주주들 간의 신뢰를 위반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빈카는 정상적인 영업 및 개발의 기회를 잃었다. 2016년에는 기업의 석유 생산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평정을 새로 뚫을 계획이었으나 경영권 압류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에 의한 법적인 경영권 회복 이후에도 회사는 제 3 자 들의 권리주장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회계 및 문서 분실 복구를 위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건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피고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한 후, 회사에 대해 명백한 부당한 권리를 수없이 제기하고 법원에 불법적인 중간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오랫동안 회사의 경제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주주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불능,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주식 발행의 실패,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투자 거부로 이어졌다.

피고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건의 소송을 제기해 중간 조치를 강구했다. 이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 사건에 대해 하나의 절차적

전략을 세우고 공동 입장을 취했으며 함께 행동했다고 판결문은 말한다. 그리고 매번 피고들은 본인들이 빈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고의적인 허위 주장을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소송에 인위적으로 관여되고 있다.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가 시작한 기업 분쟁의 결과로 발생한 회사와 관련된 법적 사건이 35 건 이상(!)이며, 이 중 23 건은 소액주주와 그 계열사의 주장이며, 그 중 어느 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시에, 지난 2 년 동안만,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회사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중간 조치가 적어도 7 번 이상 취해졌으며, 이후 모두 취소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계속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회사 관련 직무에 대한 피고인의 중대한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JSC 빈카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오랜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모든 입장을 반영하고 법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 결정의 절차적인 취소 가능성을 제거한다.- **바쉬코르토스탄 공인 변호사인 Bar Igor Ermolaev**가 논평했다.



- 회사를 압류했던 자들이 소송 초기 단계의 승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우리 법원이 좀처럼 문제를 파고들지 않고 형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문서의 위조에 대한 어떤 진술도 내부 갈등의 존재를,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만들어졌으며 무엇이 더 뒤따를 것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바쉬코르토스탄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이 사건 범주에서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주주배제에 대한 분쟁은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법 외에도 사회적 영향, 심지어 보편적 영향까지 많이 받는다.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것은 법원이 할 일이다 - 왜 특정한 행동이 저질러졌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접근은 여전히 드물지만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 이번 결정은 우리 법원에 좀 더 분석적인 접근과 형식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이 기사는 ProUfu.ru 를 위해 Gulnara MAVLIVA 에 의해 작성되었다.